

표준보육과정 (0~2세) 부분 개정(인) 공청회

수도권지역

일시 | 2024. 9. 26. (목) 15:00~17:00

장소 | 서울특별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서울중앙우체국청사)

주최



교육부

주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rogram 1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공청회

수도권지역

| 일 시 | 2024. 9. 26.(목) 15:00~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서울중앙우체국청사)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유아정책연구소

| 일정표 |

사회: 김윤희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시간	내용	
15:00~15:10 ("10)	개회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인사말	박대림 국장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황옥경 소장 (유아정책연구소)
15:10~15:30 ("20)	발표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배경 및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유아정책연구소)
15:30~16:50 ("80)	토론	[좌 정] 정선아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토론자] 김영아 교수 (송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민수영 원장 (반포퍼스티지솔마을어린이집) 전도희 교사 (시립효성해링턴1단지어린이집) 황연수 교사 (부평맑은내어린이집) 박민희 부모 (대전성남어린이집) 허현주 수석부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순남 장학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남정 센터장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16:50~17:00 ("1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Contents |

| 발 표 |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배경 및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3
[참고]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신규대조표	18

| 토 론 |

김영아 교수 (송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29
민수영 원장 (반포퍼스티지솔마을어린이집)	33
전도희 교사 (시립효성해링턴1단지어린이집)	37
황연수 교사 (부평맑은내어린이집)	43
박민희 부모 (대전성남어린이집)	46
허현주 수석부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48
김순남 장학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53
이남정 센터장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57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개발」 연구진 1

구분	성명	소속
책임자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 연구진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임부연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권혜진	나사렛대학교 아동심리교육학과 교수
	김윤희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희수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부처	유현종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과장
	문복진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연구관
	이해나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연구사
	이혜리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주무관

| 발표 |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배경 및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발표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배경 및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1.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배경 및 절차

현 정부는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을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을 구성하여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운영하였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은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 1. 30.). 정부조직법 개정(2023. 12. 26.)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는 2024년 6월 27일자로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며, 교육부는 같은 날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4. 6. 27.). 본 자료의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에 영유아교육 과정 개발 적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원칙으로 영유아의 교육적 성장과 배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과정 간 연계성·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본 계획안에는 0~2세의 경우 법 개정 전이라도 놀이를 통한 배움 공백 해소와 3~5세 누리과정 연계 강화를 위한 표준보육과정(0~2세)을 부분 개정하고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유보통합의 맥락에서 2023년에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0~5세 교육과정 통합에 대한 기초연구(김은영, 배윤진, 이정욱, 김혜금, 정유나, 2023)가 수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 철학을 견지하면서 체계와 내용상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0~5세 교육과정 제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교육과정의 제·개정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있으며, 현재 교육부는 표준보육과정의 제·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부는 0~2세 표준보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새롭게 지원대상이 된 0~2세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적 실행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이 이미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장 교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0~2세 표준보육과정의 전면 개정보다는 부분 개정으로 방향을 잡고, 이후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자료 개발과 연수에 조금 더 무게를 두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육아정책연구소에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연구를 위탁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개정 연구진은 제4차 표준보육과정 공동연구자, 누리과정 개정 정책연구 책임자와 공동연구자, 2019 개정 누리과정 현장지원자료 책임자와 공동연구자 등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참여했던 유아교육전문가와 보육전문가, 영아교육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연구진 전체가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영역별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총론 및 영역별 목표와 내용을 10회의 워크숍을 통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정책세미나 1회, 전문가 간담회 2회, 현장교원 간담회 2회, 법적 검토 1회를 통해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오늘 발표하는 개정(안)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토론자로 참여하는 다양한 관계자와 공청회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하고, 이후 국어학자의 최종 윤문과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일정 절차를 거쳐 2024년 11월경 고시할 예정이며, 2025년 3월부터 적용된다.

2.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방향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0~2세 표준보육과정 체계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대로 0~1세와 2세로 구분한다.

둘째, 2019 개정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위하여 기본생활, 신체운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영역을 3~5세 누리과정과 같이 신체운동·건강 영역으로 통합하여 총 5개 영역으로 조정한다.

셋째, 교육과정 대강화 추세와 표준보육과정 목표에서 0~2세 목표가 통합하여 제시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영역별 목표는 0~1세와 2세를 통합하여 제시한다.

넷째, 영역별 내용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교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발달

적 구분이 모호한 부분은 현장에서 교사가 실행하기 쉽도록 포괄적으로 기술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용 수정을 최소화한다.

3.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가. 표준보육과정(0~2세) 체계

표준보육과정(0~2세) 기본 체계는 연령대별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체계(0~1세, 2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 대강화 흐름과 0~5세 영유아교육과정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영역은 기존 6개 영역을 통합하여 5개 영역으로 조정하고, 각 영역에서 0~1세, 2세로 구분된 목표를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 표준보육과정(0~2)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누리과정과 같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으로 통합하였고, 기존 체계(0~1세, 2세)는 유지하지만, 0~1세와 2세의 영역별 목표는 같다.

나. 표준보육과정(0~2세) 총론

표준보육과정(0~2세) 총론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은 수정하지 못하고, 체계에서 조정된 내용과 유보통합으로 인해 기관의 명칭을 비롯하여 변화 중에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몇 가지 단어를 수정하였다. 또한 향후 0~5세 영유아교육과정으로 수월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보육과정에만 추가했던 2개의 문장을 삭제하였다.

표준보육과정의 성격에서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하, ‘표준보육과정’이라 함)’을 통합법에 따라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을 감안하여 기관을 명시하지 않고 ‘표준보육과정’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고유 명칭인 ‘3~5세 누리과정’으로 변경하였다.

구성의 중점에서는 표준보육과정에만 기술하고 있는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임을 전제로 구성한다.’는 문장은 교육과정 전반에 흐르고 있는 철학으로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또한 체계에서 6개 영역이 5개 영역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영역에 대해서 명시한 부분은 연령 구분 없이 5개 영역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편성·운영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이라고 기관 명칭을 사용한 것을 ‘각 기관’으로 수정하였다. ‘각 기관’이라는 용어는 나 항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교수·학습에서는 표준보육과정에만 있던 ‘영유아의 의사 표현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문장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교수·학습에서 기술하고 있는 모든 항목의 전제가 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별로 영역의 수가 달랐기 때문에 ‘각 영역’이라고 한 표현을 누리과정과 같이 ‘5개 영역’으로 명시하였다.

〈표 3-1〉 표준보육과정 총론 신규 대조표

구분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20)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표준보육과정의 성격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하, ‘표준보육과정’이라 함)은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며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구성한다.	표준보육과정은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며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으로 구성한다.
구성의 중점	가.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임을 전제로 구성한다. 라. 표준보육과정은 다음의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1)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2) 3~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삭제 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편성·운영	가.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에 맞추어 편성한다.	가. 각 기관의 운영 시간에 맞추어 편성한다.
교수·학습	가. 영유아의 의사 표현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바. 각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삭제 마.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다. 표준보육과정(0~2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

표준보육과정(0~2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6개의 영역을 5개로 조정하면서 기존의 기본생활 영역과 신체운동 영역이 신체운동·건강 영역으로 통합한 것이다. 하나의 영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2개의 영역의 내용을 1개의 영역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0~1세와 2세는 분리된 체계에서 기술되지만, 3~5세 누리과정이 영역별 목표를 연령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기술한 것처럼 0~2세의 목표로 통합하였다. 연령별 발달 차이는 있지만 0~2세를 모두 포괄하는 목표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1) 신체운동·건강

일상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목표가 모든 연령에서 공통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0~2세의 목표를 3~5세에 맞추어 단순화하되, 연령을 고려하여 경험의 범위를 일상생활로 좁히고 유아가 스스로 실천해야 하는 습관 기르기의 수준이 아니라 성인이 제공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경험(청결과 위생, 수유 및 이유식을 포함한 식사, 편안한 휴식과 배변)하는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전체 목표 수준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영아기 감각경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부 목표 수준에 감각을 포함하였다.

개정(안)에서 ‘감각’과 관련된 것이 세부목표 수준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4차 표준보육과정의 ‘감각과 신체인식하기’ 내용범주는 ‘신체활동 즐기기’로 통합하여 3개의 내용범주로 정리하였다. 신체활동 즐기기 내용 범주에서 0~1세의 경우 4차 표준보육과정의 ‘감각’과 관련된 내용은 ‘감각적 자극에 반응한다.’와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한다.’이다. 개정(안)에서는 감각의 도구적 표현을 지양하여 이 2가지 내용을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로 통합하였으며, 이는 0~1세와 2세의 공통내용으로 하였다. 4차 표준보육과정의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한다.’와 ‘신체를 탐색한다.’는 개정(안)에서 ‘신체와 주변을 탐색한다.’로 통합하였다. 영아는 신체를 포함하여 주변세계를 탐색하므로 신체와 주변 모두 탐색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내용범주에서 0~1세는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이고 2세는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먹는다.’인데, 음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선된다고 판단하여 0~1세에는 ‘음식에 관심을 가진다’로 2세는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로 기술하였다. 또한 0~1세의 경우 ‘배변 의사를 표현한다.’는 2세와 같이 ‘건강한 배변습관을 갖는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배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한정적이고, 건강한 배변습관을 갖는 것은 0~2세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세의 경우 4차 표준보육과정의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해본다.’는 그 범위를 자신에서 주변까지 넓혀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해본다.’로 수정하였다.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내용 범주에서 4차 표준보육과정의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는 일상생활을 생략하고 0~1세와 동일하게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로 수정하였다. 4차 표준보육과정의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해 본다.’ 또한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본다.’로 수정하였다. 이는 2세까지의 영아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놀이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보다는 성인이 안전하게 제공하는 상황에서 놀이하고 경험하기 때문이다.

〈표 3-2〉 표준보육과정 신체운동·건강 영역 신규 대조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20)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목표	0~1세	2세	목표	0~1세	2세
	기본생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1) 건강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2)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형성한다. 1) 건강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형성한다. 2)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형성한다.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1) 감각과 신체활동을 즐긴다. 2) 건강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3)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신체운동	감각으로 탐색하고 신체활동을 즐긴다. 1) 감각 탐색을 즐긴다. 2) 신체활동을 즐겁게 경험한다.	감각을 활용하고, 신체활동을 즐긴다. 1) 감각을 활용하고, 신체를 인식한다. 2) 신체활동을 즐긴다.			
내용범주	내용	내용	내용범주	내용	내용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①감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②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한다. ③신체를 탐색한다.	①감각 능력을 활용한다. ②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신체활동 즐기기	①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공) ②신체와 주변을 탐색한다. ③대소근육을 조절한다.(공) ④기본 운동을 시도한다. ⑤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공)	①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공) ②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③대소근육을 조절한다.(공) ④기본 운동을 즐긴다. ⑤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공)
신체활동 즐기기	①대소근육을 조절한다. ②기본 운동을 시도한다. ③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①대소근육을 조절한다. ②기본 운동을 즐긴다. ③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①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②음식에 관심을 가진다. ③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④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공)
건강하게 생활하기	①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②음식에 즐겁게 먹는다. ③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④배변 의사를 표현한다.	①자신의 몸을 깨끗이 해 본다. ②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먹는다. ③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 ④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①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공) ②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공) ③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①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공) ②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공) ③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①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②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③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①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②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해 본다. ③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2) 의사소통

모든 영유아는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교육내용을 경험하므로 교육목표는 경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간략화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0~1세와 2세 목표를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2세의 의사소통 영역의 목표인 '상상력의 기초를 형성한다.'를 목표 수준에서 삭제하여 상상력 기초 형성에 대한 교사 이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아가 경험하는 일상생활을 추가하고,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가 아닌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의사소통 능력 그 자체이며 이미 의사소통 능력을 4가지로 구분하였으므로 각 영역에서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경험을 하며 그 능력을 길러가게 된다. 따라서 세부 목표 중 '0~1세의 읽기와 쓰기에 관련된 관심을 가진다.'의 '관련된 관심' 의미가 모호하여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로 정리하였다. 또한 책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 0~1세 영아 역시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느끼므로 0~1세의 세부 목표도 2세에 제시한 '책과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로 정리하였다.

듣기와 말하기 내용 범주에서 0~1세의 경우 4차 표준보육과정의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는 개정(안)에서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로 수정하였다. '관심을 갖고 듣는다.' 보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표현이 더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감각에 해당하며, 이는 영아의 특성에 더 부합한다. 2세의 경우 4차 표준보육과정의 '표정, 몸짓, 말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는 개정(안)에서 '말이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인다.'로 수정하였다. 2세는 '몸짓과 표정' 등의 신체 언어에서 '말이나 이야기'의 음성언어의 소통으로 넘어가는 시기이므로 '표정이나 몸짓' 대신 '이야기'로 수정하였다. 또한 4차 표준보육과정 2세 내용 중 '표정, 몸짓, 단어로 의사를 표현한다.'는 삭제하였는데, 이는 해당 내용이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의 방식에 포함되며, 2세는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여 소통하는 경험이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내용범주에서 2세의 경우 '주변의 그림과 상징,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에서 글자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글자도 상징에 속하며 글자를 별도로 언급하는 경우 현장에서 2세에 글자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인위적인 노력이 시행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의 내용 범주에서 0~1세의 경우 4차 표준보육과정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개정(안)에서 2세와 동일하게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로 수정하

였다. 이는 0~1세에도 말놀이를 하며, 관심을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말놀이를 즐기고 재미를 느끼는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표 3-3〉 표준보육과정 의사소통 영역 신규 대조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20)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0~1세	2세		0~1세	2세
목표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를 형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즐긴다. 2) 읽기와 쓰기에 관련된 관심을 가진다. 3) 책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의 기초를 형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즐긴다.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3) 책과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목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1)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즐긴다.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3) 책과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내용 범주	내용	내용	내용 범주	내용	내용
듣기와 말하기	①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②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③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①표정, 몸짓, 말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②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③표정, 몸짓, 단어로 의사를 표현한다. ④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듣기와 말하기	①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②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③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①말이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인다. ②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③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①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②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	①주변의 그림과 상징,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②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①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공) ②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	①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공) ②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①책에 관심을 가진다. ②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①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②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①책에 관심을 가진다. ②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공)	①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②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공)

3) 사회관계

0~1세와 2세의 목표를 통합하여 '나를 알아가며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한다.'로 정리하였다. 사회관계에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며 자신을 고유한 사회적 존재로 알아가는 것이 주요한 내용임을 강조하였고, 구체적으로 1세의 '인식'이 2세의 '알고'보다 어려울 수 있어 이를 통합하여 '알아가기'로 수정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것에 이미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은 삭제하였다. 세부 목표에서 1세의 '고유한 존재로 안다.'는 삭제하기보다 내용수준이 더 적절하여 조정하고, 2세까지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 정도가 적당하므로 첫 번째 세부목표는 '나를 알고 긍정적으로 여긴다.'로 수정하였다. 0~1세의 경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목표보다는 내용 수준에서 기술하는 것이 더 적절하여 조정하였다. 2세의 경우 기존의 두 번째 세부목표인 '다른 사람과 즐겁게 지내기 위한 태도를 기른다.'는 다소 어려운 목표로 판단되어 '함께 지내는 즐거움을 경험한다.'로 수정하였고, '함께'의 공동체성과 '즐거움'의 긍정적 경험, '경험'의 행위성 등을 강조하였다. 2세까지는 주변의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나를 알아가며,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적절히 반응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지내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세부목표로 적절함을 강조하였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내용 범주에서 4차 표준보육과정의 0~1세 '나를 인식한다.'와 2세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한다.'의 내용은 개정(안)에서 '나의 고유함을 알아간다.'로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나(자기)는 고립이 아닌 관계를 통해 형성되므로 나에 대한 인식과 다른 사람과의 구별을 연령별로 구분하기보다는 영아가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나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고유함'은 영아기에 '나'의 형성에 핵심적 배움의 내용이며, 영아는 일상에서 주변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고유한 존재임을 알아가는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알아간다.'와 '해본다.' 등으로 동사표현을 조정하여 교사가 영아기 교육내용을 고정한 의미가 아닌 행위성과 지속적 되기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더불어 생활하기 내용범주에서 2세의 경우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반응한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존중한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영아를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배워가는 존재로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반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알고 지킨다.'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안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2세아의 경우 반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모두 알고 잘 지키는 것이 다소 어렵고, 이렇게 기술할 경우 교사들이 규칙과 약속을 지키는 것에 너무 얽매어서

영아의 주도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규칙은 약속에 포괄되는 것으로 삭제하고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음을 영아가 지각하는 정도의 인식경험으로 기술하였다.

〈표 3-4〉 표준보육과정 사회관계 영역 신규 대조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20)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0~1세	2세		0~1세	2세
목표	나를 인식하고, 친숙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1) 나를 고유한 존재로 안다. 2)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또래, 교사와 함께 지낸다.	나를 알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한다. 1) 나를 알고 긍정적으로 여긴다. 2) 다른 사람과 즐겁게 지내기 위한 태도를 기른다.	목표	나를 알아가며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한다. 1) 나를 알고 긍정적으로 여긴다. 2) <u>함께 지내는 즐거움을 경험한다.</u>	
내용 범주	내용	내용	내용 범주	내용	내용
나를 알고 존중하기	①나를 인식한다. ②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 ③나와 친숙한 것을 안다.	①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한다. ②나의 감정을 표현한다. ③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	①나의 <u>고유함을 알아간다.(공)</u> ②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 ③나에게 친숙한 것을 안다.	①나의 <u>고유함을 알아간다.(공)</u> ②나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한다. ③내가 좋아하는 것을 <u>해본다.</u>
더불어 생활하기	①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②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③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④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①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 ②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③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반응한다. ④반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알고 지킨다.	더불어 생활하기	①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②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③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④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①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 ②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③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존중한다. ④ <u>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안다.</u>

4) 예술경험

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0~1세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한다.', 2세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로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2세의 목표를 그대로 수용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로 통합하였다. 0~1세 내용 중에도 경험한다, 관심 가진다 외에 모방행동을 '즐긴다.' 등이 포함되어,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하며, 자신의 발달수준에 맞게 즐기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세부 목표에서 0~1세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 2세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관심을 가진다.'를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로 간략하게 통합하였다. 관심을 가진다는 부분은 내용 범주인 '아름다움 찾아보기' 수준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0~1세 '예술적 경험을 표현한다.'와 2세 '예술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자유롭게 예술 표현을 한다.'로 통합하여 간략화 하였다. 예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영아들도 자신의 생각, 느낌을 표현할 수 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

아름다움 찾아보기 내용 범주에서 4차 표준보육과정의 0~1세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와 2세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는 개정(안)에서 0~1세에서 기술한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로 통합하였다. 4차 표준보육과정의 2세 내용은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한데, 2세는 3~5세보다는 오히려 0~1세와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영아는 자연과 생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심미적 경험을 해 봄으로써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0~1세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는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로, 2세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는 '다양한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로 수정하였다. 이는 누리과정과의 연계선상에서 아름다움의 대상에 '예술'을 포함한 것이며, 2세에 '다양한'을 추가하면서 연령별 위계성을 가지고자 하였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내용범주에서 2세의 경우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에서 '자유롭게'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2세는 자유롭게 표현하기보다 노래와 리듬에 맞추어 몸을 흔들거나 악기로 표현하고 노래의 리듬이나 노랫말에 맞춰 움직이거나 노래 부르기 때문이다. 0~1세 또한 움직임으로 표현하는데,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움직임으로 표현한다.'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0~1세 '감각을 통해 미술을 경험한다.'는 '다양한 미술 재료를 경험한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미술재료의 다양한 질감과 느낌을 경험하는 것을 감각으로만 한정하지 않기 위함이며, 미술재료에 초점을 두어 교사가 영아의 예술경험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해 본다.'는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한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다양한’을 추가하여 연령별 위계성을 가지기 위함이며, ‘표현해 본다.’를 ‘표현한다.’로 수정한 것은 한 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도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또한 0~1세의 ‘모방 행동을 즐긴다.’는 ‘모방하기를 즐긴다.’로 다소 일반적인 용어로 수정하였으며, 2세의 ‘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이로 표현한다.’는 단순화하여 ‘상상놀이를 한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상상놀이의 주제가 일상생활의 경험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 3-5〉 표준보육과정 예술경험 영역 신규 대조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20)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0~1세	2세		0~1세	2세
목표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한다. 1)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 2) 예술적 경험을 표현한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1)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관심을 가진다. 2) 예술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한다.	목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1)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2) 자유롭게 예술 표현을 한다.	
내용 범주	내용	내용	내용 범주	내용	내용
아름 다움 찾아 보기	①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②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	①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②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아름 다움 찾아 보기	①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공) ②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①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공) ②다양한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창의적 으로 표현 하기	①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②감각을 통해 미술을 경험한다. ③모방 행동을 즐긴다.	①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 ②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③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해 본다. ④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이로 표현한다.	창의적 으로 표현 하기	①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②움직임으로 표현한다. ③다양한 미술 재료를 경험한다. ④모방하기를 즐긴다.	①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 ②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한다. ③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한다. ④상상놀이를 한다.

5) 자연탐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세계와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알고자 하며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므로 0~1세에도 주변 환경과 자연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따라서 자연탐구 영역의 0~1세 목표인 ‘주변 환경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는 2세 목표인 ‘주변 환경과 자연을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로 통합하였다. 0~1세 세부 목표 첫 번째 또한 ‘일상에서 탐색을 즐긴다.’에 ‘과정’을 추가하여 2세의 목표인 ‘일상에서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로 통합하였다.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수반하고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0~1세 두 번째 세부목표인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도 2세의 목표인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다.’로 통합하였다. 세 번째 세부 목표는 4차 표준보육과정에서도 0~2세가 동일한 내용으로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탐구과정 즐기기 내용 범주에서 4차 표준보육과정의 2세 ‘사물과 자연을 반복하여 탐색하기를 즐긴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반복하여’를 삭제하였다. 반복하여 탐색하는 것은 2세에 새롭게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며, 더 어린 연령에서도 주변환경을 탐색하며 자신에게 흥미로운 사건이나 사물을 발견하면 의도적으로 이를 반복하여 그 결과를 다시 얻고자 한다. 또한 영아의 흥미나 관심에 따라 반복하여 탐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반복적 탐색은 영아기의 발달적 변화의 측면보다는 영아의 흥미와 관심과 더 관련성이 있으므로 연령별 차이를 ‘반복’으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내용범주에서 2세 내용인 ‘친숙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감각으로 탐색한다.’는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2세는 전조작기 초기여서 감각운동기적 사고 특성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물체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탐색은 2세의 발달과 경험을 넘어서는 내용이 될 수 있다. 0~1세와 2세의 공통 내용인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는 공히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로 수정하였다. 영유아기는 자연스럽게 수 개념이 발달하는 하는 시기이고 ‘수량’보다 ‘수’가 더 포괄적 개념이므로 ‘수’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우리나라 초중등 수학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8] 2022 초중등 수학과 교육과정) 등에도 ‘수량’이 아닌 ‘수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수에 대한 관심은 물체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상’으로 수정하였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내용범주에서 0~1세 ‘날씨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와 2세 ‘날씨

와 계절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에서 공히 ‘감각으로’란 표현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느낀다는 것에 이미 감각을 포함하고 있으며, 느끼는 것을 감각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3-6〉 표준보육과정 자연탐구 영역 신규 대조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20)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0~1세		2세	0~1세		2세
목표	주변 환경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 1) 일상에서 탐색을 즐긴다. 2)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3)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환경과 자연을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1) 일상에서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2)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다. 3)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	목표	주변 환경과 자연을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1) 일상에서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2)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다. 3)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	
내용 범주	내용	내용	내용 범주	내용	내용
탐구 과정 즐기기	①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②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①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②사물과 자연을 반복하여 탐색하기를 즐긴다.	탐구 과정 즐기기	①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공) ②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공)	①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공) ②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공)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①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②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③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④규칙성을 경험한다.	①친숙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②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③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④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⑤주변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⑥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①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공) ②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공) ③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공) ④규칙성을 경험한다.	①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공) ②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공) ③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공) ④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⑤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⑥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①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②날씨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	①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②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①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공) ②날씨의 변화를 느낀다.	①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공) ②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후속조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부는 표준보육과정(0~2세) 개정 자체보다는 영아 교육과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작업은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 고시문을 기반으로 해설서, 실행자료(0~1세, 2세), 모든 영아를 위한 자료(장애, 장애위험, 다문화 등) 4종의 현장지원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지원자료에 기초한 다양한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교사들이 표준보육과정을 더 쉽게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모쪼록 ‘부분’ 개정이라는 작은 변화와 교육부의 적극적인 0~2세 표준보육과정 운영 지원이 현장의 혼란은 최소화하면서도 0~2세 교사들의 표준보육과정 이해와 실천을 도울 수 있기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한 성장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신규대조표**

[총론]

구분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20)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표준 보육 과정의 성격	<p>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하, '표준보육과정'이라 함)은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며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구성한다.</p> <p>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p> <p>나.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p> <p>다. 영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p> <p>라.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p> <p>마. 영유아, 교사, 원장, 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 가는 것을 추구한다.</p>	<p>표준보육과정은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며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으로 구성한다.</p> <p>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p> <p>나.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p> <p>다. 영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p> <p>라.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p> <p>마. 영유아, 교사, 원장, 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 가는 것을 추구한다.</p>

제1장 총론

1.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방향

1. 추구 하는 인간상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2. 목적과 목표	<p>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p> <p>가. 0~2세 보육과정 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한다. 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한다. 3)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상상력을 기른다. 4)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감성을 기른다. 5)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p>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p> <p>가. 0~2세 보육과정 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한다. 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한다. 3)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상상력을 기른다. 4)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감성을 기른다. 5)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구분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20)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p>나. 3~5세 보육과정 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3)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4)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5)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p>나. 3~5세 누리과정 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3)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4)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5)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p>3. 구성의 중점</p>	<p>표준보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p> <p>가.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임을 전제로 구성한다.</p> <p>나.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p> <p>다.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p> <p>라. 표준보육과정은 다음의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2) 3~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p>마. 0~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p> <p>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표준보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p> <p>가.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p> <p>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p> <p>다. <u>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u></p> <p>라. 0~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p> <p>마.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II. 표준보육과정의 운영

<p>1. 편성·운영</p>	<p>다음의 사항에 따라 표준보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p> <p>가.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에 맞추어 편성한다.</p> <p>나.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p> <p>다.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p> <p>라.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p>	<p>다음의 사항에 따라 표준보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p> <p>가. 각 기관의 운영 시간에 맞추어 편성한다.</p> <p>나.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p> <p>다.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p> <p>라.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p>
-----------------	--	--

구분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20)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마. 영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바.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사. 교사 연수를 통해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영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바.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사. 교사 연수를 통해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수·학습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영유아를 지원한다. 가. 영유아의 의사 표현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나. 영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다.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라.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마. 영유아와 영유아, 영유아와 교사, 영유아와 환경 사이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바. 각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사.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 영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영유아를 지원한다. 가. 영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나.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다.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라. 영유아와 영유아, 영유아와 교사, 영유아와 환경 사이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바.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 영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3. 평가	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가.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나. 영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의 결과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표준보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가.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나. 영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의 결과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표준보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영역별 목표 및 내용]

1. 신체운동·건강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20)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0~1세	2세		
목표	기본 생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생활을 경험한다. 1) 건강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2)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의 기초를 형성한다. 1) 건강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형성한다. 2)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형성한다.	목표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1) 감각과 신체활동을 즐긴다. 2) 건강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3)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신체 운동	감각으로 탐색하고 신체 활동을 즐긴다. 1) 감각 탐색을 즐긴다. 2) 신체활동을 즐겁게 경험한다.	감각을 활용하고, 신체 활동을 즐긴다. 1) 감각을 활용하고, 신체를 인식한다. 2) 신체활동을 즐긴다.		
내용 범주	내용	내용	내용 범주	내용	내용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한다. • 신체를 탐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 능력을 활용한다. •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신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공) • 신체와 주변을 탐색한다. • 대소근육을 조절한다.(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공) •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 대소근육을 조절한다.(공)
신체 활동 즐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 기본 운동을 시도한다. •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 기본 운동을 즐긴다. •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즐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운동을 시도한다. •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운동을 즐긴다. •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공)
건강하게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 배변 의사를 표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해 본다. •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먹는다. •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 •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 음식에 관심을 가진다. •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해 본다. •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 •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공)
안전하게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해 본다. •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공) •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공) •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공) •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공) •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2. 의사소통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20)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0~1세	2세		0~1세	2세
목표	<p>의사소통 능력의 기초를 형성한다.</p> <p>1)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즐긴다.</p> <p>2) 읽기와 쓰기에 관련된 관심을 가진다.</p> <p>3) 책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p>	<p>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의 기초를 형성한다.</p> <p>1)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즐긴다.</p> <p>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p> <p>3) 책과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p>	목표	<p>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p> <p>1)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즐긴다.</p> <p>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p> <p>3) 책과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p>	
내용 범주	내용	내용	내용 범주	내용	내용
듣기와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정, 몸짓, 말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 표정, 몸짓, 단어로 의사를 표현한다. •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듣기와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이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인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이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그림과 상징,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이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공) •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공) •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에 관심을 가진다. •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에 관심을 가진다. •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공)

3. 사회관계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20)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0~1세	2세		0~1세	2세
목표	나를 인식하고, 친숙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1) 나를 고유한 존재로 안다. 2)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또래, 교사와 함께 지낸다.	나를 알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한다. 1) 나를 알고 긍정적으로 여긴다. 2) 다른 사람과 즐겁게 지내기 위한 태도를 기른다.	목표	나를 알아가며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한다. 1) 나를 알고 긍정적으로 여긴다. 2) 함께 지내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내용 범주	내용	내용	내용 범주	내용	내용
나를 알고 존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인식한다. •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 • 나와 친숙한 것을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한다. •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 •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고유함을 알아간다.(공) •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 • 나에게 친숙한 것을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고유함을 알아간다.(공) • 나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한다. •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본다.
더불어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 • 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반응한다. • 반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알고 지킨다. 	더불어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 • 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존중한다. •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안다.

4. 예술경험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20)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0~1세	2세		0~1세	2세
목표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한다. 1)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 2) 예술적 경험을 표현한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1)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관심을 가진다. 2) 예술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한다.	목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1)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2) 자유롭게 예술 표현을 한다.	
내용 범주	내용	내용	내용 범주	내용	내용
아름다움 찾아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아름다움 찾아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공) •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공) • 다양한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창의적으로 표현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 감각을 통해 미술을 경험한다. • 모방 행동을 즐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 •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해 본다. • 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이로 표현한다. 	창의적으로 표현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 다양한 미술 재료를 경험한다. • 모방하기를 즐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 •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한다. •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한다. • 상상놀이를 한다.

5. 자연탐구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20)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0~1세	2세		0~1세	2세
목표	주변 환경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 1) 일상에서 탐색을 즐긴다. 2)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3)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환경과 자연을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1) 일상에서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2)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다. 3)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	목표	주변 환경과 자연을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1) 일상에서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2)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다. 3)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	
내용 범주	내용	내용	내용 범주	내용	내용
탐구 과정 즐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사물과 자연을 반복하여 탐색하기를 즐긴다. 	탐구 과정 즐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공)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공)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공)
생활 속에서 탐구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규칙성을 경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숙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생활 속에서 탐구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공)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공)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공) 규칙성을 경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공)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공)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공)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날씨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공) 날씨의 변화를 느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공)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 토론 |

- 김영아 교수 (송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민수영 원장 (반포퍼스티지솔마을어린이집)
전도희 교사 (시립효성해링턴1단지어린이집)
황연수 교사 (부평맑은내어린이집)
박민희 부모 (대전성남어린이집)
허현주 수석부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순남 장학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남정 센터장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토론문은 교육부의 의견이 아니고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토론 1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공청회 토론문

김영아 교수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은 영유아들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요건이다. 2024년 6월 교육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되며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기 전 교육부는 우선 0~2세 표준보육과정을 개정하여 영아기 교육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개정(안)을 통해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영아의 발달과 교육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영아기 발달 및 교사의 실행 측면에서 몇 가지 고려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개정방향 및 체계

29

○ 개정 방향

-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대로 0~1세와 2세로 구분하여 제시한 점은 영아기의 급격한 발달의 변화를 고려하는 면에서도 적합함
- 0~5세 영유아교육과정으로 가는 과도기에 이루어지는 개정이므로 교육과정의 잦은 변화로 인한 교사들의 교육과정 이해 및 실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정이 이루어진 점은 타당함

○ 표준보육과정(0~2세) 체계와 총론

- 기본생활은 영아기뿐 아니라 유아기에도 지속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신체운동·건강 영역으로 통합되는 것은 적절하며 어린이집에 한정된 용어들을 수정하여 유보통합을 대비하고 3~5세 누리과정 체계와의 연계성을 높였음
- 구성의 중점과 교수학습방법 중 전 연령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문장들을 삭제하여 향후 개발되어질 0~5세 영유아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수월하도록 개정되었음

- 기존의 연령별로 나뉘어있던 목표가 통합되어 누리과정 체계와 통일성을 갖추었으며 0~2세에 나타나는 발달의 연속성과 개인차를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

2. 영역별 목표와 내용범주

○ 신체운동·건강영역

- [감각과 신체인식하기]라는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 범주가 [신체활동 즐기기]에 통합되어 영아들의 행동 특징이 잘 표현되었음
- 0~2세에 공통으로 포함된 ③대소근육을 조절한다 는 3~5세 누리과정의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와 위계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2세 ④기본운동을 즐긴다 와 ⑤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내용 간에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건강하게 생활하기] 2세 ①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해 본다 와 [안전하게 생활하기] ②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에서 사용되는 '-해 본다' 는 어미 사용의 필요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교육과정 전체로 보면 주로 '-한다' 는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미상 큰 차이점이 없다면 통일시키는 것이 교사들의 이해에 도움이 됨
- [안전하게 생활하기] ①, ②번을 성인이 제공하는 안전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는데 2세는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달상 좀 더 주체적인 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예,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 의사소통영역

- [듣기와 말하기] ①표정, 몸짓, 말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를 ①말이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수정하며 음성언어를 강조한 점은 2세에게 적절하나 0~1세와 동일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는 어미보다는 듣는 행위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음. 또한 2세가 되면서 음성언어 소통이 증가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비음성적 언어인 표정이나 몸짓도 함께 보면서 음성 언어를 이해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책과 이야기 즐기기] ①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에서 상상하는 것이 책을 즐기는 필수요소는 아니며 상상놀이는 예술경험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사소통영역에서는 책을 보는 행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예, 책에 관심을 가지고 즐긴다)

○ 사회관계영역

- 목표를 간략화하고 1)나를 고유한 존재로 안다를 내용범주 수준으로 수정한 것이 적절함. 또한 ‘알아간다’는 어미를 사용하여 자신의 고유함을 아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발달과정임을 교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나를 알고 존중하기] ③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본다 (한다 → 해본다)와 예술경험영역의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③미술재료와 도구로 표현한다 (표현해본다 → 표현한다)는 수정 사유(지속성)는 비슷하나 수정된 결과가 상반되므로 검토가 필요함
- [더불어 생활하기] ③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존중한다 로 수정하여 영아들의 능동성을 부각한 점은 이해되나 ‘존중한다’라는 단어가 주는 모호함으로 인해 교사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진 않을까 우려됨. 또한 자기중심적인 2세가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존중하는 것이 발달상 적절한지와 3~5세 누리과정에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라는 내용과의 수준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생활하기] ④지켜야할 약속이 있음을 안다 로 수정한 이유는 이해하나 발달에 적합한 규칙 지도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의 개별 영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또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2세부터 간단한 약속을 지키는 행동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사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혹은 교사지원자료와 연수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예술경험영역

- 기존에 있던 모호하고 어려운 내용(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감각을 통해 미술을 경험한다, 모방 행동을 즐긴다, 상상놀이를 표현한다)들이 발달에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수정되었음
-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①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0~1세) 와 ①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2세)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2세 내용이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창의적으로 다르게 표현한다는 의미라면 더 높은 수준에 해당되지만 익숙한 리듬과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면 0~1세 내용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느껴짐

○ 자연탐구영역

- 개정(안)의 용어와 내용이 영아기 발달에 적절하여 현장에서 교사가 이해하고 실행하기 쉽도록 수정되었음
- [탐구과정 즐기기] ①주변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에서 세계를 환경으로 바꾸어 좀 더 영아들의 삶과 관련성을 높였고 교사들의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연도 환경의 일부이므로 ‘주변 환경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로 더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함
- [생활속에서 탐구하기] ④규칙성을 경험한다(0~1세)와 ④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2세)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원자료가 필요해 보임
- [생활속에서 탐구하기] ⑤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와 ⑥생활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는 내용은 0~1세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통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해보기를 권하며 만약 포함시킨다면 ⑤번은 수준을 낮춰 ‘사물의 같고 다름에 관심을 가진다’ 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연구에 참여하신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후 개정(안)을 현장교사들이 잘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자료가 개발되고 연수 및 컨설팅을 통해 보급되어 생애 초기 가장 중요한 0~2세 발달기에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토론 2

영아를 위한 새로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기대와 현장의 목소리

민수영 원장 (반포퍼스티지솔마을어린이집)

안녕하세요. 이번 개정안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현장의 교사들과 영유아,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3차 표준보육과정에서 2020년, 제4차 표준보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며 영유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현장의 경험과 반응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앞두고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1. 제4차 표준보육과정을 경험하며 ...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거쳐 2020년도부터 제4차 표준보육과정을 경험하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을 넘어 영아 존재에 대한 이해와 교육의 방향성, 운영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체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교육의 질 향상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영아의 존재, 배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놀이 중심의 접근으로 영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그들이 자율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아는 놀이를 통해 배움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유능한 어린 학습자라는 것, 그에 따라 적절한 놀이 지원을 하는 교육과정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개성과 속도, 잠재력을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2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

교사들은 교육방법, 평가부터 시작하여 자신들의 철학을 재고하기까지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도를 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영유아를 깊이 있게 관찰하며 귀 기울임의 교육을 하는 교사의 역할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 상황이라도 영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고, 이는 그들의 교육 철학을 재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교육과정(놀이)을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해야만 했습니다. 교사들 간의 협력과 소통이 없으면 교육과정이 구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개별 영유아에 맞춘, 각 반만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1.3 부모의 놀이 이해와 참여 증진

부모들도 놀이 중심으로의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해 알고 함께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교사와 기관이 영유아의 흥미, 놀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주도하는 주체가 다 보니 더욱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이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가정에서도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발달을 중심으로 자녀를 관찰하던 부모들이 놀이를 통해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시도를 서서히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4 기관의 변화

기관 차원에는 실내-외 환경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과거 주제중심교육과정에서 꼭 해야만 했던 수업 중심의 자료들을 없애고 현재는 영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감각 놀이자료들을 지원하여 교육 환경이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같은 연령이라고 해도 영아들의 흥미, 요구가 달라 교실마다 다른 놀이자료, 환경을 제시하여 그들의 호기심,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개성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였습니다.

2. 유보통합을 앞두고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현장의 반응

유보통합이 다가오면서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우려도 존재하며, 교사, 부모, 그리고 기관 모두가 느끼는 감정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2.1. 긍정적인 기대감

현장에서는 유보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부분들이 일관성있고 체계화되며 정부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원과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영유아와 교사들에게 유익한 더 많은 현장지원 자료와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기를 기대하며 이는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 우려와 불안

하지만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존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조정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며, 이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개별 영아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통합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영아를 돌봄, 유아를 교육의 대상으로 구분하고 돌봄과 교육을 이분화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정선아, 박보영, 2023). 영아의 존재와 배움에 대한 이해 없이 유보통합에 있어 돌봄과 교육을 이분화하여 교육과정이 구성된다면 현장에서는 무척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2.3. 부모의 우려와 기대

부모들은 유보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녀의 교육, 양육 방식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교육 기관과의 소통이 강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 컨디션, 배변, 수유, 식사, 수면, 놀이 등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부모와 소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육시간이 늘어나며 협력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강조한 것처럼 각 어린이집이 국가수준

보육과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각 기관의 철학, 담당 반과 부모의 요구에 따라 보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의 배경 및 방향에 대하여

개정 방향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교사들은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시기인 만큼 전면 개정보다는 부분 개정은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개정된 영역별 내용이 교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모호한 부분은 내용이 수정되어 현장의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은 현장 지원 자료와 연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교사들이 표준보육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2019 개정누리과정을 위해 지원되었던 ‘놀이이해자료’와 ‘놀이실행자료’는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교사들이 놀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제로 어떻게 놀이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협의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현장지원자료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보다 쉽게,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개정안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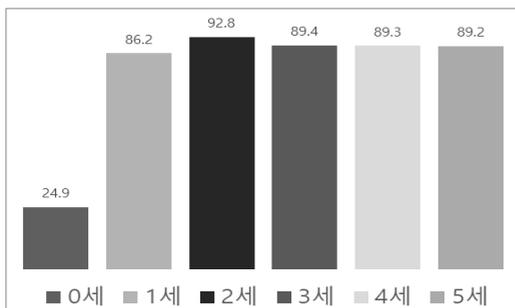
잊혀지는 인생의 첫 선생님, 우리의 노력이 아이의 첫 배움의 순간입니다.

전도희 교사 (시립효성해링턴1단지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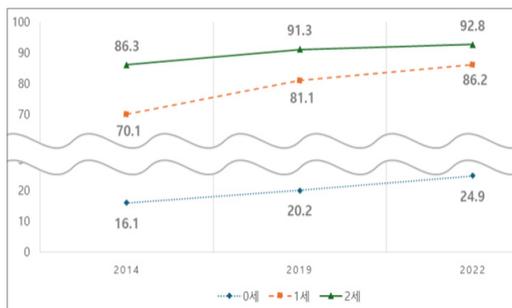
1. 표준보육과정(0~2세) 개정 및 연구에 대한 필요성

2022년 영유아 주요통계에 따르면 기관을 이용하는 영아는 가정보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0세를 제외하면 유아의 비율과 유사한 비율로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2세의 경우 10년 전인 2014년에는 24.9%에 그쳤으나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81.1%, 2022년에는 92.8%로 대부분의 영아들이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연령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2022)



〈표 1-2〉 연도별 어린이집 이용 영아 수



유아와 비슷한 비율로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식습관, 배변, 수면 등 일상생활의 보육에 더 집중되어 영아는 안전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유아에 비해 영아의 놀이에 대한 연구가 현저히 적게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영아 역시 보육, 즉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 보호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지원 역시 받아야 한다.

2020년 제4차 표준보육과정으로 개정되며 영아들도 놀이 중심을 추구하여 영아들이 주도하는 놀이를 통해 보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영아 놀이에 대한 연구, 자료, 경험 등의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영아의 놀이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과정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이 많았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따르면 0~2세의 영아들은 ‘신뢰감 대 불안감’, ‘자율성 대 수치심’ 단계에 해당된다. 그동안의 보육현장에서는 ‘신뢰감 대 불안감’에 주목하여 영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였으나 이제는 영아들이 자유롭게 탐색하고 스스로 시도해보는 경험을 통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보다 성장한 교사의 지원이 요구된다.

2. 영아의 특성에 대한 고민이 더해진 보육과정

이번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을 살펴보면 영아의 특성에 대한 고민이 더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음식에 관심을 가진다’(0~1세),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2세)에서는 이유식에서 일반식으로 연계되는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공)’에서는 특정 연령에 해당되기 보다 개별적 특성과 관심에 따라 배변 습관을 형성해가는 개별성 존중, 자연탐구 영역의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공)’에서 수량 뿐 아니라 수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에 관심을 가지는 영아들의 특성 이해 등 현장에서 경험한 영아의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부에서는 기본생활영역이 신체운동영역과 통합되어 영아의 일상생활 지도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대한 지도는 별도의 영역으로 지도하기 보다 일과 내에 수시로 반복해 지도하여야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일상생활에서의 교사의 지원은 영아에게 놀이하는 힘을 길러주며 일상생활에서의 발견이 놀이로 확장되기도 한다.

일례로, 현재 담임하고 있는 2세 영아들은 무엇이든 스스로 시도해보기를 원한다. 특히 학기 초 교사가 자신의 물병에 물을 따라주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시도해보기를 원했다. 교사는 2세 영아들이 신체조절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나지만 서툰 시기이기에 물을 따르기 전에 물병에 남은 물을 스스로 버려보는 기회를 먼저 제공하였다. 이후 스스로 물을 따라볼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바구니 안에서 물을 따라볼 수 있도록 제안하거나 물을 흘렸을 때 교사와 함께 닦아볼 수 있도록 수건과 휴지를 물병 옆에 비치하였다. 영아들이 스스로 물을 따라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물을 흘린 뒤 스스로 닦아보며 수건에 스며든 물을 탐색하며 ‘물’을 이용한 놀이로 발전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기본생활영역은 신체를 조절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소근육을 조절하여 음식 또는 수저를 들어 음식을 담아야 하고, 저작 운동이 수반된다. 배변훈련을 위해서는 걷기 운동을 통해 괄약근에 힘이 생겨야 하고, 이것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본생활에 대한 내용을 신체운동·건강 영역으로 통합하여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영아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보육과정

제 4차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 중 하나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한다.’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영아들은 때때로 보육 현장에서 놀이의 주체로 인정받기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여겨져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사를 ‘안전’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현장에서 영아들을 보육하는 교사로서 영아들이 주도성을 가진다는 것이 교사의 교육권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영아가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사가 영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격려하며 발달에 알맞게 지원하였다는 반증이다.

개정안의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공)’, 사회관계영역의 ‘나의 요구와 감정을 나타낸다/표현한다’(0~1세/2세), 예술경험 영역의 ‘다양한 미술 재료를 경험한다’(0~1세)와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한다.’(2세) 등의 내용을 통해 영아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교사의 지원이 필요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탐색하고, 발달에 알맞게 지원받은 경험을 통해 영아들도 유능한 존재로 인정받고, 발달에 적절한 지원을 통해 사고하며 놀이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

4. 교사 지원 방안에 대한 제언

발표 자료에서 ‘이번 개정 작업은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기에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교사 지원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첫째, 영아 놀이 지원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환경 개선 및 지원

발표 자료에서는 4종의 현장지원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다양한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교사를 지원할 예정임을 이야기하였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아에 비해 영아 교사를 위한 관련 연구나 자료가 현저히 적다. 현장에서 영아를 보육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에 앞서 다양한 주제와 유형을 가진 유아 놀이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있는 아이누리 포털과 같이 영아의 놀이 지원 사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0

그러나 이것이 놀이 자랑, 또는 놀이 환경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 서로의 놀이를 공유하는 교사들이 많고, 초임 교사 뿐 아니라 많은 교사들이 이러한 매체를 이용해 놀이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서로의 놀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지원한 내용보다는 지원한 환경 또는 사진 찍기 좋은 놀이, 부모님이 보고 좋아할 놀이에 중점을 두어 경쟁하듯 놀이환경을 구성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교육의 주체가 영유아, 원과 교사, 부모이기에 부모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사진을 찍기 위한 놀이로 변질되어 영유아가 놀이에 마음껏 참여하여 탐색하는 것을 막는 사례들도 많다. 특히 0~1세의 경우 입으로 탐색하는 것이 당연한 시기이지만 이것을 무시한 채 놀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영아 놀이 지원에 대한 자료를 통해 교사가 자료 뿐만 아니라 공간과 일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떤 상호작용을 나누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놀이를 계획·지원하고 평가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둘째, 우리 반 전문가는 나! 연구 공동체의 활성화

영아들의 놀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영아들의 개별적 특성을 인정하고 알맞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를 위한 지원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원, 다른 반, 다른 연령의 특성에 맞춰진 놀이를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으나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많다. 하지만 누구보다 우리 반 영아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반 영아들을 위해 가장 고민하는 담임교사일 것이다. 우리 반 영아들에게 알맞은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원 내 또는 전문가를 통한 개별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강의 보다는 소그룹 형태로 함께 고민하고 교사의 지원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연구 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영아의 첫 배움의 순간을 위한 준비된 교사의 태도

영아가 놀이를 통해 배움을 얻기 위해서는 배움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 때때로 영아교사는 엄마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 기저귀 갈아주고 안 다치게 보는 사람으로 치부되곤 한다. 그러나 영아교사는 영아가 가족을 떠나 처음 만나는 보호자이자 교사이다. 영아들의 기억에서는 잊혀지지만 영아들의 평생을 함께 하는 모든 자기 인식의 기초가 되는 존재이다. 한 사람의 무의식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되새기며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찾고, 영아들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된 내용 중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임을 전제로 구성한다.’와 ‘영유아의 의사 표현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발표 자료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교사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영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때로는 이것을 잊고 영아들을 주관적으로, 내 경험에만 의존하여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영아가 주도하는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교사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교육에 앞서 교사의 태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교육 뿐만 아니라 처음 교사가 되고자 했던 사명감과 열정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론문의 제목처럼 영아들에게는 잊혀지는 인생의 첫 선생님인 영아교사, 이번 개정안과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영아교사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되찾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의 기회를 주신 연구진과 육아정책연구소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개정 과정을 시작으로 현장의 많은 영아 교사들도 전문성과 자부심을 회복하여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운 영아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교육적 지원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의 기회가 많아 지기를 바란다.

5. 참고문헌

- 육아정책연구소(2014). 2014 유아교육보육 통계
- 육아정책연구소(2020). 2019 영유아 주요 통계
- 육아정책연구소(2023). 2022 영유아 주요 통계
-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토론 4

모든 영아를 위한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에 대하여

황연수 교사 (부평맑은내어린이집)

들어가는 말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0~5세 영유아의 발달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보다 질 높은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유보통합 추진을 통해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추후 발표된다면 기존의 0~2세 표준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에서 연계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이음교육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실행과 지원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바이다.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시행이 되기 전 이번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을 통해 영아 발달의 기초를 다지고 3~5세 시기의 적응을 위해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토론문은 장애통합반을 운영하는 일반 담임교사로서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에 대한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모든 영아를 위한 표준보육과정에 대하여

영아반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영아들의 발달의 개인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장애영아 및 장애위험 영아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표준보육과정은 일반영아뿐만 아니라 장애영아 및 장애위험 영아를 포함한 모든 영아를 위한 통합보육을 실현해야 한다.

표준보육과정 부분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대강화 흐름과 0~5세 영유아교육과정으로 가기 위하여 0~2세의 목표를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개인차가 있는 영아의 발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지원자료 또는 실행자료 등을 통해 아동의 발달 수준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학습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는 교사 지원 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천 가능한 통합보육의 구체적인 사례나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영아가 보육 환경에서 느끼는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2. 장애영아와 일반영아의 통합보육환경에 대하여

장애영아가 속한 통합반을 운영하면서 장애영아를 포함한 모든 영아가 차별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학습하고 놀이하는 과정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중점을 뒀야 하는 통합적 보육환경이 필요하다.

표준보육과정 부분 개정(안)에서는 장애통합보육을 장려하는 방안을 명시해야 하며 장애영아와 일반영아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보육환경에서 장애영아가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경험할 수 있기에 수용적인 환경 조성과 더불어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모든 교실과 활동 공간에 대해서 일반 영아와 함께 장애영아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설계되어야 한다.

3. 교사 전문성 강화에 대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언어, 인지, 일상생활 등 여러 영역에서 장애영아와 일반영아의 발달 차이가 적게 나타난다. 영아기는 일반영아에게 교육의 적기인 동시에 장애영아에게도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장애의 진전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발달상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교사는 영아의 장애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기에 그 역할은 크다. 장애영아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지원과 자극을 통해 더 많은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또한,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영아기에 장애요소를 발견하고 조기 개입하는 일은 추후 유아기로 들어설 때 기관에 적응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교사뿐만 아니라 일반교사도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장애진단과 조기개입 등 전반적인 특수교육 서비스 과정을 받으면서 기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표준보육과정 부분 개정 시, 교사가 장애영아의 개별적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수법을 제공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교사들에게 변화되는 교육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오는 말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은 장애영아와 장애위험 영아 등 모든 영아에게 포용적이고 적합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에 맞춘 교육을 실행할 수 있으며 추후 0~5세 영유아교육 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영유아들이 원활하게 발달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애영아가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and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영유아의 보육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모든 영유아들이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개정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표준보육과정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토론 5

영아 교육과 보육의 국가 책임 강조 및 어린 영아기부터 교육과정의 연계를 고려한 개정

박민희 부모 (대전성남어린이집)

2012년 우리나라 유아들에게도 국가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되었고, 이를 경험하고 자란 첫째가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같은 연령의 유아가 다니더라도 기관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따른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 영아 자녀들은 누리과정이 아닌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보육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안은 내 자녀가 배우게 될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에 관심이 많았고, 당시에 도 이슈였던 ‘유보통합’이라는 것에 눈길이 가기도 하였지만 몇 년동안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며 자연스럽게 관심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46

그러다 2년 전 늦둥이 둘째를 출산하게 되며 저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시 영유아교육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띠동갑 터울의 늦둥이 딸을 낳고 오랜만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경험한 표준보육과정은 솔직히 말하면 누리과정 개정만큼의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발달특성 상 영아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내용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작년부터 많은 학부모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모두의 관심사 ‘유보통합’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학부모 입장에서는 현장에 계시는 원장님, 선생님들에 비해 유보통합이라는게 크게 피부에 와 닿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교육과정이 어떻게 된다는거지?”, “그래서 내 자녀가 다니는 기관은 어떻게 된다는 거지?” 늘 해소되지 못한 궁금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표준보육과정 부분 개정 공청회 학부모 토론자로 참여하며 관련 자료들을 받아보니 이번 표준보육과정 부분 개정 배경이 3~5세 누리과정 연계 강화라는 점에서, 어린 영아기부터 국가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타급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어린 영아기부터 고려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영아기의 교육이라 하면 단순히 식습관, 배변훈련 등과 같은 일상생활습관 교육이나 기본 욕구 충족을 위한 돌봄만이 주로 연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표준보육과정 부분개정 내용을 살펴보니 교육과정의 대강화 흐름에 맞춰나가고, 0~5세 영유아교육과정으로 가기 위한 밑거름으로 영역도 6개 영역에서 5개 영역으로 통합·조정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감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한다.’에서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로 통합하는 영역 체계들과 같이 어떤 전제되고 제한적인 의미가 있는 문장들은 삭제하였다는 대목에서는 누리과정과 같이 놀이활동의 연계성과 연속성을 많이 고려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였습니다. 이번 표준보육과정 부분 개정을 통하여 영아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밟아가는 연계가 잘 이루어져, 그들의 교육적 ‘이음’이 원활하게 이루고자 하는 노력에서 앞으로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교육 기회를 받고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표준보육과정 부분 개정의 취지를 보며 앞으로 내 자녀가 영아기-유아기-아동·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책임의 다양한 교육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니 안심이고 믿음이 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개정된 교육과정과 함께 실제 학급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들에게 최소한의 혼란을 줄 수 있는 현장 지원 자료 역시 풍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근간이 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사가 이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으며 잘 실천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잘 만들어진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현장으로 잘 옮겨 실행할 수 있는지 즉, 교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표준보육과정 부분 개정 후속 조치를 보니 교육부를 통하여 개정 고시문을 기반으로 해설서와 실행자료, 장애, 장애위험, 다문화 등과 같이 모든 영아를 위한 현장지원자료와 연수과정과 컨설팅을 통해 보다 쉽고 실행 가능하도록 지원 계획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여 안심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현장지원이 개정 당시 일부 기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동안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당장은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겠지만 이번 표준보육과정 부분 개정을 통하여 탄탄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수혜자가 영아기부터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히고, 어린 영아들에게도 수준 높은 교육·보육·돌봄의 기회가 주어지고 교사와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 현장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6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공청회 토론문

허현주 수석부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표준보육과정 부분 개정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자리를 통해 영아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표준보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영역과 내용 범주에서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좀 더 고려해야

현재 영아(0~2세)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보육과정의 영역 구성이 유아(3~5세)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영아의 발달 특성과는 다소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역 자체의 조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영역의 목표와 내용 범주를 구성할 때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좀 더 면밀히 고려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신체운동·건강 영역

0~2세 영아는 피아제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감각운동기에 해당합니다. 피아제는 이 시기 영아의 감각운동 경험을 하나의 영역으로 본 것이 아니라 0~2세 영아의 발달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 시기는 감각과 운동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시기일 뿐 아니라 감각과 운동은 급격한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영아기에 뇌 발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영아들이 감각과 운동 경험의 부족으로 발달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이 다양한 감각 운동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이 바로 표준보육과정이어야 합니다. 신체운동·건강 영역에서 내용 범주를 조정하여 영아의 감각과 운동 경험을 보다 비중 있게 다루었으면 합니다.

기존에 감각과 신체활동으로 나누어졌던 내용범주가 기본생활과 신체운동 영역이 합쳐지면서 ‘신체활동 즐기기’가 됨으로써 감각과 운동 경험이 축소되었으므로 감각과 운동을 분리하거나 확대 강화하여 이 시기 영아가 경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자리매김 되길 바랍니다.

2) 의사소통 영역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에서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 범주는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끼기의 세 가지로 나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주 설정은 유아 (3~5세) 발달에 맞춰져 있다고 보이며 0~2세 영아에게는 다소 높은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며 듣기와 말하기를 보다 확대 강화하고, 읽기와 쓰기, 책과 이야기의 내용 범주를 통합하여 축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예술경험 및 자연탐구 영역

예술경험과 자연탐구 영역 역시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된 예술경험 영역의 목표와 내용 범주는 좀 더 영아의 생활과 발달에 밀착된 내용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아는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일상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하므로, 예술경험 영역에서도 이들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보다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목표는 추상적일 수 있으며, 대신 영아가 직접적으로 일상과 놀이 속에서 자연과 예술적 요소를 접하면서 탐색하고 즐기는 과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술경험에서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0~2세 영아에게 충분히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연 예술의 요소나 본질이 아름다움에 국한 될 것일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2. 0~2세반 영아의 뇌 발달 특성을 반영한 보육과정

3세까지 뇌 기본 회로의 80%가 형성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 제공되는 뇌 발달에 적절한 경험과 양육 환경은 이후 영유아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보육과정은 영아의 뇌 발달 특성과 단계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하며 0~3세까지의 뇌 발달 단계에 맞춘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보육과정이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영역과 내용 범주 구성에서 모든 영역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무엇이 영아의 발달에 더욱 중요한 경험인지를 영아의 뇌 발달을 기준으로 파악하여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2세 영아의 뇌 발달에 감각, 운동, 감정, 언어, 사람과의 관계, 사고력, 동기유발, 집중력 등의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발달적 특성에 따라 영역과 내용 범주의 비중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3. 표준보육과정의 실천을 위한 어린이집 여건 마련

표준보육과정의 실천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교육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며, 보육과정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여건 마련이 필요합니다.

1) 시급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개선

교사들은 보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아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교사 대 영아 비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사들은 개별 영아의 요구에 세심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지며 영아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영아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영아에게 적합한 환경에서 놀이와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각 영아의 발달과 요구에 맞춰 특히 월령별 발달이 급격이 이루어짐에 개별화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교사 대 영아 비율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의 축소

어린이집에서 지나치게 많은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영유아의 일과가 매우 바쁘고 자유놀이 시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아중심 놀이중심 보육과정의 실천을 방해할 뿐 아니라, 영아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육과정은 영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놀이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의 대상 연령과 개수, 시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3)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교사들은 다양한 점검에 대응하기 위한 과도한 업무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에 충분히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기에 서류나 기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등하원시 실내 개방과 같은 부모와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어린이집의 교육적 투명성과 질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활성화

영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습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공식 업무 시간으로 편성하고, 교사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사들이 언제든지 교육과정 관련 자료와 실천 사례, 전문가의 조언 등을 쉽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0~2세 개정 표준보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영아 모두에게 적합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교사 대 영아 비율 개선,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의 축소,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그리고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만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표준보육과정 부분 개정이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7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 보·유 연계교육의 첫걸음

김순남 장학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앞두고,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개정안은 0~2세 표준보육과정의 전면 개정보다는 부분 개정으로 방향을 잡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용 수정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도 유아·놀이 중심 교육의 철학을 유지하면서, 보·유 연계교육 차원에서 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영유아의 자연스럽게 연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2019 개정 누리과정과 함께 살펴보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5개 영역으로의 통합이다. 개정안은 표준보육과정(0~2세)의 6개 영역을 5개로 조정하면서 기존 ‘기본생활’과 ‘신체운동’ 영역을 ‘신체운동·건강’으로 통합했다. 이는 기본생활의 목표와 내용이 건강과 안전한 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신체운동·건강’ 영역으로 통합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통합되었을 때 3~5세 교육과정과도 연계된다.

둘째, 0~2세 영역별 목표의 통합이다. 기존에는 영역별 목표가 0~1세와 2세로 나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0~2세로 통합했다. 이는 유아와 마찬가지로 영아도 교사가 영아의 놀이를 통한 경험을 이해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해 보인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고시되었을 때, ‘스스로 놀이하며 배우는 유능한 유아’로서 ‘3세 유아도 과연 놀이가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3세 유아도 배움의 주체임을 많은 현장은 증명하고 있다.

영아도 마찬가지다. 몸동작과 언어가 자칫 단조롭게 보일 수는 있으나 그 어느 때보다

영아는 놀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폭풍 성장을 한다. 어른들은 놀이의 주체인 영아의 경험(배움)을 현상학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는 살아 숨 쉬는 순간부터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다.

셋째, 영역별 내용 체계 유지이다. 개정안은 5개 영역의 목표가 통합되었지만, 각 영역의 내용은 0~1세와 2세로 구분된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놀이 중심’의 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을 연령 구분 없이 제시하고 있고, 표준보육과정은 연령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아가 친숙한 주변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그 세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와 관련해 영아의 특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5개 영역별 목표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감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표준보육과정에도 영역별 목표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영유아가 현재의 경험을 통해 미래로 성장해 간다는 점에서 현재 경험하는 내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영유아는 5개 영역의 내용을 일상에서 경험하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을 향해 성장해 나간다. 이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은 5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결짓고, 5개 영역의 목표와는 일대일 대응 관계가 아니며, 59개의 내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5개 영역의 목표를 영유아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5개 영역의 목표 제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목표와 평가의 관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할 때 주목해야 할 유아의 ‘배움(경험)’이 누리과정의 운영에 명확히 안내되어야 한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영유아의 평가를 어려워하고 있다. 최근 유아 평가에 대한 컨설팅에서, “유아 평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교사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 유아의 발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교사들이 여전히 ‘유아 놀이 관찰·기록’과 ‘유아 평가’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사가 놀이를 관찰할 때 무엇을 관찰하고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놀이가 유아의 배움의 방식, 내용, 과정이라면, 교사는 놀이를 통해 유아의 배움(경험)을 더 주목해서 관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유아 평가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해설서에 “교사는 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 속에서 유아의 고유한 특성이나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돕기 위해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실에서 발견한 유아의 특성이나 변화를 바탕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를 여전히 어려워한다.

아래 제시된 사례는 교사들이 발견한 유아의 특성이나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상’과 쉽게 연결 짓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유아의 배움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알 수 있는 평가 방법을 깨닫게 되면서, 놀이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추후 관련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교사들에게 유아의 놀이 영상을 보여준 후 질문했다.

“유아들은 무슨 경험을 하고 있나요?”

교사들은 팽이 놀이, 색깔 맞추기, 종이 뜯기, 수영장 놀이, 그림자 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언급했다. 나는 이것을 칠판에 적고 이야기한 후 다시 질문했다.

“이번에는 유아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놀이 방식, 내용, 과정에 주목해서 말해주세요.”

교사들은 당황했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난감해했다. 그래서 나는 5개 영역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비로소 교사들은 즐거움, 창의성, 신체 인식, 관계, 표상, 언어 표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유아의 경험을 발견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

교사들이 발견한 유아의 경험을 다시 칠판에 적었다. 그리고 관련된 것끼리 연결 짓고 공통된 단어를 쓰도록 했다. 교사들은 유아의 경험들이 점차 ‘5가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고 흥분했다.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가깝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5개 영역의 내용이 유아의 경험 위주로 진술되어야 한다. 이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유아가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소통’ 영역에서도 유아가 언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일상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활용하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험을 교사는 유아의 놀이나 일상생활을 통해 충분히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아들이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을 이야기하고, 교사가 그 내용을 칠판에 적어주는 것은 유아들이 문자가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험을 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유아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될 시 5개 영역의 내용은 유아의 경험 중심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5개 영역으로의 통합과 0~2세 영역별 목표의 통합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영역별 목표와 평가, 영역별 내용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보육과정 개정 역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영아가 배움의 주체로서 세상 속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3~5세 교육과정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유아들이 자신의 배움을 세상 속에서 펼치며 더 큰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토론 8

유보통합과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에 대한 기대

이남정 센터장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표준보육과정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보육과정의 목표와 영유아가 경험하게 될 보편적인 보육 내용을 국가 수준에서 고시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보육과정을 실행해야 하는 현장의 책무성과 이러한 교육적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책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만큼 현장의 교육적 실행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표준보육과정의 부분 개정을 위한 자리에 본인이 함께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2023.12.26.)에 따라 유보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고 있지만 때로는 각자의 처지에서 명확하지 않은 모호함으로 불안과 혼란을 겪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영유아의 성장과 배움을 위해, 또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준비하며 표준보육과정이 우선으로 부분 개정된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영유아의 질 높은 교육 강화를 위해 개정 작업에 참여하시는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몇 가지 의견을 더하고자 한다.

먼저,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지지를 보낸다. 유보통합으로 시작된 현장의 혼란을 교육과정 안에서라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기존 0~1세, 2세 체계 유지, 영역별 내용 수정의 최소화 등)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의 통합으로 가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한 것에 동의한다. 예를 들어 6개 영역에서 5개의 영역으로 조정하고, 영역별 목표를 0~1세, 2세의 구분 없이 하나로 통합한 것, 영역별 내용에서도 0~1세와 2세 공동으로 적용하는 내용에 대한 비중을 늘린 것 등을 말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매우 환영하며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혹여 지엽적이라 여길 수 있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개정 배경에 큰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이 있어 우려스러움에 이를 언급하고자 한다. 발표 원고 첫 페이지 1.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배경 및 절차 첫 단락 마지막 문장은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본 계획안에는 0~2세의 경우 법 개정 전이라도 놀이를 통한 배움 공백 해소와 3~5세 누리과정 연계 강화를 위한 표준보육과정(0~2세)을 부분 개정하고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언급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에 영유아교육과정 개발이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아 부분 개정을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여기서 기술한 법 개정 전이라도 놀이를 통한 배움 공백 해소를 위해서 표준보육과정을 부분 개정하고 시행하겠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현재 보육에는 놀이를 통한 배움이 없다’가 전제되는 것이다. 2020년 제4차 표준보육과정이 2019 누리과정과 맥을 같이하여 개정된 이후 영유아와 놀이중심, 교사 자율성이 강조된 교육과정이 어린이집 현장에 전파되며 영아에게도 당연히 놀이를 통한 배움이 일어나고 있었다. 유보통합이 되면서 영아의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영아에 대한 교육, 돌봄이 일상에서 서로 얽혀서 구별 없이 배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놀이를 통한 배움’이라는 용어가 유보통합 이후 ‘가르침의 놀이학습’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성격, 구성방향, 운영지침에 따라 현재도 배움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교육과정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4차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모니터링 연구가 없어 영아의 성장과 변화, 교사의 전문성, 부모 인식, 현장의 변화 등 교육실행에 대한 성과를 검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부분 개정 이후에는 성과 검증에 대한 후속 연구가 꼭 수반되었으면 한다.

개정안에서는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5개 영역으로 재정비하고 각 영역의 목표를 연령 구별 없이 통합하여 기술하였고, 내용 범주도 누리과정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하였다. 내용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통합 또는 간략화하였고 때로 0~1세와 2세의 내용이 연령 구별 없이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연령별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연령 구별의 모호함을 포괄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몇몇 내용에서는 연령별 위계를 두기 위하여 한 단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도 했는데 수공되기보다 다소

역지사리움이 있다. 아마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0~1세, 2세의 체계 유지에 따라 연령 구분과 위계가 필요했고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고민도 많았을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연령별 체계에서의 내용은 발달주의나 발달 단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의사소통 영역에서 2세는 음성언어로 넘어가는 시기라 ‘표정이나 몸짓’ 대신 ‘이야기’로 수정했다 것과, 자연탐구 영역에서 2세는 전조작기 초기여서 감각운동기적 사고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 ‘물체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탐색이 2세 발달과 경험을 넘어서는 내용이 될 수 있어 삭제하였다는 것도 앞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미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능한 영유아’, ‘놀이를 통한 배움’은 관계적 존재론의 철학에서 영유아와 배움을 바라보고 있기에(이연선, 2022),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이 연령에 따라 해야 하는 수준이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도록 이후 「0~5세 영유아교육과정」 개발 시에는 0~1세, 2세의 연령 구분에 따른 내용 구성에 대해 고민해주시길 바란다.

다음은 교육부가 표준보육과정 개정보다 국가 책임인 후속조치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2020년 제4차 표준보육과정이 개정된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교육과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적용을 돕는 내용의 ‘놀면서 자란다’ 교육이 각 3시간, 2시간씩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3년간 총 교육수료자는 81,048명으로 어린이집 담임교사 161,078명(보육통계, 2023.12) 중 거의 절반이 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보육현장은 여전히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을 어려워하고(김숙령, 2023)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교사연수의 필요성을 요구한다(방현실, 2020; 전유영, 2021).

〈표 1〉 3개년 간 표준보육과정 교육 추진 현황

(단위: 회, 명, 개소)

구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교육 횟수	1,412	588	425	399
이수자 수	81,048	35,632	23,423	21,993
참여센터	306	119	122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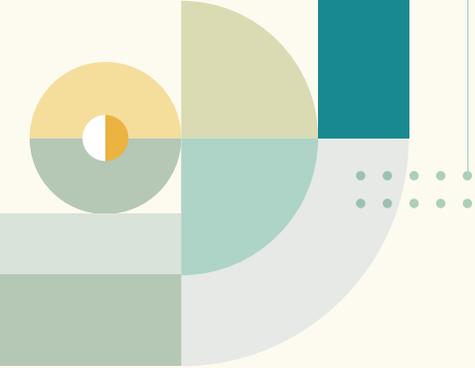
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3)

실상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부터 어린이집은 자율성을 부여받아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지만 교사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지원은 받지 못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교사교육이 교사의 교수법과 아동역량 증진에 효과적이라면 교사의 교육 신념, 지식, 실재를 모두 변화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인경 외, 2020). 그런데 우리 교사교육을 돌아보면 지식과 실제의 내용은 강조하고 있지만 신념이나 철학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는 않는다. 2019년 누리과정 개정 이후 유아교육, 보육에서는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 이전의 관점과 시각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힘들다. 사실 전통적 교육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다양한 관점에 대한 열린 사고를 강조하여 인식론적 전환을 이루어야 하나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와 무엇을’의 요구에 집중된 교육을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제4차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영아교사의 전문성은 영아와 영아보육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며 이러한 관점에 대한 전환은 일방적 강의나 일회성의 경험으로 바뀌지 않고 지속적인 경험과 성찰에 의해 변화된다(김숙령, 2023). 영유아·놀이 중심 교실에서 교사의 반성적 성찰은 교사의 교수역량이 되고 놀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핵심의 과정이 된다. 표준보육과정의 부분 개정을 계기로 교사의 반성적 성찰을 끌어낼 수 있는 개별적, 맞춤형, 소그룹, 소통형의 새로운 교사교육 형식을 정부 차원에서 시도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부분 개정 고시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자료 개발 계획이 반갑고 기대가 된다. 특히 ‘모든 영아를 위한 자료’는 새로운 시도이면서 현장의 요구가 많은 자료라 큰 도움이 될 거 같다. 관련하여 한 가지를 더 제안을 하자면, 현재 저출산 문제로 신입 원아가 줄어들며 각 기관은 원아모집 경쟁으로 부모의 요구를 거절하며 영유아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 호소한다. 육아정책연구소(2022)의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도 원장과 교사는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부모의 변화에서 ‘놀이 중심 교육철학’이 가장 낮다고 인식하고 있고 교사들은 놀이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부모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어린이집의 책임이지만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자료 개발 등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

참고문헌

- 김숙령(2023),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 반영된 영아존중의 실제적 이해,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4(3), 199-212.
- 김인경, 정선아, 박보영(2020), 교육혁신과 인적역량에 관한 연구: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01*, 68-86.
- 김은영, 강은진, 김혜진, 전홍주, 최명희(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 방안 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 방현실(2020),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교사연수 요구도, *구성주의유아교육연구 no.7*, 67-98.
-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건복지부.
- 이연선(2022), 2019 개정 브리티시 컬럼비아 유아교육과정의 ‘배움’과 ‘폐다고지’에 대한 언어적 전환과 철학적 전제, *한국유아교육연구*, 24(4), 5-23.
- 전유영(2021),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영아교사의 인식과 운영실태 및 요구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8-212.
- 정선아(2024), 배움의 존재로서 영아: 배움 중심 교육과정 다시 보기, *한국영유아교육과정 학회 추계학술대회*.17-42.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3), 2023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20-150.



표준보육과정 (0~2세) 부분 개정(인) 공청회

수도권지역

주최



교육부

주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